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3부 · 적극적 표지 9: 하나님을 두려워함

『신앙감정론』 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중 아홉 번째 표지, 인쇄 505~514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거짓 감정의 결말을 보여 준다. 처음엔 뜨거웠던 사람이 결국 그 체험 때문에 더 무뎌지고, 그리스도를 “죄를 지켜 주는 방패”로 쓰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참된 은혜는 돌 같은 마음을 어린아이의 살처럼 여리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떠는 '경외'가 생긴다. 이어서 “성도에게는 거룩한 담대함도 있지 않느냐”는 반론에 답한다. 참된 담대함은 죄 때문에 생긴 거리는 없애지만,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거리는 결코 없애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밝힌다. 은혜는 양심을 더 예민하게 하기 때문이다. 기쁨·소망·확신이 클수록 지옥에 대한 공포는 줄고, 죄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커진다는 역설로 장이 끝난다.

🪪 표지 카드

표지 9(적극): 은혜로운 감정은 마음을 녹여 부드럽게 하고, 그 뒤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여린 마음이 따라온다.

거짓 감정은 처음에 아무리 뜨거워도 결국 양심을 무디게 하고 죄에 대담하게 만든다. 참된 은혜는 반대로 죄를 더 깊이 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든다. 그래서 “체험 뒤에 마음이 굳어졌는가, 여려졌는가”가 그 감정의 출처를 가려내는 증거가 된다.

📜 절별 정리

📜 1. 거짓 감정은 결국 마음을 굳힌다 — 그리스도를 '죄의 방패'로 쓰는 사람들 ^

에드워즈는 먼저 거짓 감정(affection — 마음이 무언가에 강하게 끌리거나 밀어내는 움직임)이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 그린다. 그런 감정은 처음 겪을 때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국 마음을 강퍅하게, 곧 딱딱하게 만든다. 그 결과 자기 이익, 자기를 높이는 마음, 남을 적대하는 마음이 자리 잡는다.

에드워즈는 이 사람들을 '율법적 깨달음'의 시기와 비교한다. 율법적 깨달음은 은혜를 받기 전 지옥이 두려워 죄를 자각하던 상태를 말한다. 체험 이후 이들은 그때보다 죄에 덜 찔리고, 말씀의 경고와 하나님의 징계에 둔해진다. 힘든 의무는 피하고 어려운 계명은 일부만 지킨다. “이제 지옥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편안함과 욕망이 주는 위로를 더 찾는다.

에드워즈의 진단은 날카롭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죄를 구원해 주는 분”으로 믿는다. 다시 말해 죄를 조용히 즐기도록 지켜 주는 방패로 그리스도를 쓴다. 그리스도의 품까지 다가오지만 치마 속에 무기를 숨긴 채 그분과 싸우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이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달콤함을 누린다고 떠벌린다. 성경은 이들을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꾼” 사람이라 부른다. “나는 의인이니 산다”는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죄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하게 경고하신다.

1. 거짓 감정의 끝은 굳은 마음이다
2. 체험 뒤 오히려 양심이 무뎌진다
3. 힘든 의무를 피하고 위로만 찾는다
4. 그리스도를 죄의 방패로 이용한다
5. 그러면서 확신과 달콤함을 자랑한다

> **유다서 1:4**
>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꾼 자들 — 이 위선자들의 성경적 이름
>
>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에스겔 33:13

자기 의를 믿고 죄를 범하는 자는 그 의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경고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 2. 참된 감정은 마음을 녹인다 — 어린아이의 마음

은혜로운 감정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꾼다. 거룩한 사랑과 소망은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할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 결과 지옥에 대한 '노예적 공포'(벌이 무서워 억지로 조심하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신중함이 생긴다. 앞 표지에서 말한 '경건한 슬픔'(하나님께 죄지은 것 자체를 슬퍼하는 마음)이 이 부드러움의 뿌리다. 이 슬픔은 자기 손해 때문에 슬퍼하는 '율법적 슬픔'보다 마음을 훨씬 더 여리게 한다.

예수께서 참된 신자를 어린아이에 비유하신 것이 그 그림이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씻은 뒤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된 이야기를 에드워즈는 거듭남의 예표로 읽는다. 예표란 뒤에 올 실체를 미리 보여 준 그림자다. 어린아이는 쉽게 움직이고 쉽게 운다. 남의 고통을 차마 못 보고, 친절에 쉽게 마음을 연다. 위협이 보이면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부모에게 달려가 숨는다.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질 때, 집에서 멀어질 때 두려워한다. 성도도 영적 위험을 쉽게 알아채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도께 달려가 숨는다.

1. 사랑과 소망이 마음을 여리게 한다
2. 경건한 슬픔이 율법적 슬픔보다 깊다
3. 거듭난 마음은 어린아이의 살 같다

열왕기하 5:14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됨 — 거듭남이 주는 부드러움의 예표

>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한복음 11:35

우시는 예수 — 남의 슬픔에 함께 우는 마음

>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로마서 12:15

우는 자와 함께 울라 — 어린아이 같은 공감

>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린도전서 12:26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두 고통받음 — 공감하는 마음

>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잠언 28:14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고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짐 — 이 장 전체의 대조

>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 3.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어린아이는 윗사람의 분노와 경고를 두려워한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그렇다. 에드워즈는 “떤다”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들을 연달아 든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다. 에스라 시대에 회개의 모임을 이룬 사람들도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었다. 어린아이가 윗사람에게 굴복한

나아가듯 성도는 거룩한 '경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경외란 사랑하면서도 그 크심 앞에 깊이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1. 성도는 하나님의 경고에 쉽게 떤다
2. 하나님은 말씀 앞에 떠는 자를 돌보신다
3. 경외는 겁이 아니라 존경 어린 두려움
4. 공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 **시편 119:120**
> 주를 두려워하여 육체가 떤다 — 성도의 경외 고백
>
>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 **이사야 66:2**
> 말씀으로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 경외에 대한 약속
>
>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 **이사야 66:5**
> 말씀 앞에 떠는 자들아 들으라 — 말씀이 향하는 대상
>
>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 **에스라 9:4**
>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죄 때문에 모여 옴 — 떨림이 회개로 이어짐
>
>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 10:3

명령을 떨며 행하는 자의 뜻을 따름 — 떨림과 순종의 결합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욥기 13:11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느냐 — 경외의 근거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 4. 떨며 말하는 사람 — 경외는 믿음의 본질

에드워즈는 거룩한 경외가 참된 믿음의 본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자체를 자주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거룩한 감정은 사람을 자신만만하고 잘난 체하고 시끄럽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떨면서 말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모든 행동에 거룩한 두려움을 옷처럼 입힌다. 에드워즈는 이것을 여러 신약 구절과 연결한다. 예배와 기쁨, 신앙을 변호하는 일,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 직장에서의 섬김, 가정생활, 믿음에 서 있는 자세까지 모두 두려움과 떨림이 함께한다.

1. 경외는 참 믿음의 주된 부분이다
2. 성경은 믿음을 '경외'라 자주 부른다
3. 거룩한 감정은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
4. 떨며 말하는 것이 성도의 말투다
5. 삶 전체에 거룩한 두려움을 입힌다

호세아 13:1

에브라임이 떨으로 말할 때 놀임을 받음(KJV) — 떨며 말하는 자세가 존귀함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

시편 2:11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 섬김에도 두려움이 함께함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베드로전서 3:15

소망의 이유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 변증에도 경외가 함께함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고린도후서 7:15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함 —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떪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에베소서 6:5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 일터의 섬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베드로전서 3:2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 가정생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로마서 11:20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 믿음에 서 있는 자의 자세

>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 5. 반론: 성도에게는 거룩한 담대함도 있지 않은가?

에드워즈는 “기도와 예배에는 거룩한 담대함도 있지 않느냐”는 반론을 받아들인다. 그런 담대함은 분명히 있다. 특히 믿음과 사랑이 큰 탁월한 성도에게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는 두 종류의 거리를 구분한다. 죄 때문에 생긴 도덕적 거리와 노예처럼 서먹한 관계는 담대함이 없애 준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한히 높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자연적 거리'는 결코 없애지 않는다. 흠 없는 천사들도 보좌 앞에서 얼굴을 가린다. 그러니 죄 많은 “땅의 벌레”가 그들보다 덜 공손할 수는 없다.

에드워즈는 이를 인물들로 보여 준다. 리브가는 신랑 이삭을 만날 때 낙타에서 내려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 에드워즈는 리브가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형으로 본다. 엘리야는 바람·지진·불 때문이 아니라 친구처럼 들려온 세미한 음성 앞에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말하던 모세도 영광을 보았을 때 급히 땅에 엎드렸다. 가장 가까울 때 가장 공손했다는 것이 요점이다.

1. 거룩한 담대함은 실제로 있다
2. 담대함은 죄로 인한 거리를 없앤다
3. 창조주와 피조물의 거리는 남는다
4. 천사도 보좌 앞에서 얼굴을 가린다
5. 가장 가까울 때 가장 공손했다

> **이사야 6:2**
> 스랍들이 얼굴을 가림 — 흠 없는 존재도 경외로 나아감
>
>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64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65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열왕기상 19:12~13

세미한 음성 앞에서 얼굴을 가린 엘리야 — 공포가 아닌 친밀함 속의 경외

12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출애굽기 34:8

영광을 본 모세가 급히 엎드림 — 가장 가까운 자의 경배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 6. 거짓 담대함과 참된 낮아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주 친한 척하며 위대하신 여호와를 참을 수 없을 만큼 무례하게 부른다. 거룩한 담대함을 흉내 내는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거리를 실제로 본다면 두려움 속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이들은 자기가 거룩하다고 확신하고 당당히 나아간 바리새인과 같다. 자기 악함을 제대로 보면 멀리 서서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친 세리처럼 될 것이다.

죄인에게 어울리는 자세는 통회와 부끄러움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과 함께 간다. 에드워즈는 교회가 최고의 영광을 누릴 마지막 날에도 이 자세일 것이라고 예언된 본문을 든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 교회는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한다. 누가복음 7장의 여인은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 많은 탁월한 성도였다. 그런데도 그녀는 얼굴 앞에 서기를 감당하지 못해 예수의 뒤,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발을 씻었다. 큰 사랑과 깊은

1. 친한 척하는 무례함은 가짜 담대함이다
2. 바리새인은 당당했고 세리는 멀리 섰다
3. 용서받을수록 부끄러워 입을 다문다
4. 사랑 많은 여인이 가장 낮게 엎드렸다
5. 믿음의 담대함과 통회는 함께 간다

누가복음 18:11~13

바리새인과 세리(에드워즈가 이야기로 언급) — 거짓 담대함과 참된 낮아짐의 대조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에스겔 16:60~63

용서받은 교회가 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함 — 최고의 특권 속에서도 겸비함

60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1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62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63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복음 7:38

예수 뒤 발 곁에서 울며 발을 씻은 여인 — 사랑에서 나온 공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 7. 왜 부드러워지는가 — 은혜는 양심을 더 예민하게 한다

은혜로운 감정이 여린 마음을 낳는 이유는 참된 은혜가 양심을 깨우기 때문이다. 회심 전에도 양심이 깨어나는 때가 있다. 참으로 회심해 믿음의 평안을 누리면 지옥에 대한 공포는 사라진다. 그러나 죄에 대한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커진다. 은혜는 율법적 깨달음이 보여 준 것, 곧 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보게 한다. 거기에 더해 율법적 깨달음이 못 본 것, 곧 죄가 무한히 혐오스럽다는 사실까지 보게 한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는데도 양심이 찔렸다. 에드워즈의 비유가 선명하다. 참된 회개자의 양심은 불에 덴 적이 있어 불을 무서워하는 아이 같다. 가짜 회개자는 확 달궈졌다가 급히 식은 쇠처럼 전보다 더 단단해진다. 거짓 회심은 율법이 일으킨 죄의 깨달음마저 없애거나 약하게 만든다.

1. 회심 후 공포는 사라져도 죄 인식은 커진다
2. 은혜는 양심을 무디게 하지 않는다
3. 죄의 무한한 추함까지 보게 한다
4. 작은 죄에도 찔린 다윗의 양심
5. 가짜는 달궜다 식힌 쇠처럼 굳는다

> **사무엘상 24:5**
> 사울의 옷자락을 벤 뒤 마음이 찔린 다윗(에드워즈가 이야기로 언급) — 은혜 받은 양심의 예민함
>
>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벰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죄를 뉘우치는 사람의 양심은 불에 덴 적이 있어서 불을 무서워하는 아이와 같다."

📜 8. 기쁨도 소망도 확신도 마음을 여리게 한다 — 이 표지의 역설

경건한 슬픔만이 아니다. 모든 은혜로운 감정이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은혜로운 기쁨은 "떨며 즐거워하는" 기쁨이다. 은혜로운 소망을 품은 사람을 성경은 "경외하는 자"와 같은 사람으로 부른다. 그래서 소망이 높아질수록 마음은 더 여려진다.

여기서 에드워즈는 역설을 줄줄이 늘어놓는다. 거룩한 '확신'(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앎)이 생기면 노예적 공포는 사라지고 그만큼 경외가 커진다. 심판의 결과는 덜 두려워지는데, 하나님의 진노 자체는 더 두려워진다. 지옥은 덜 두려운데 죄는 더 두려워진다. 구원을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질수록 자기 마음을 지키는 데 더 힘쓰고, 자기 힘을 덜 믿는다. 가장 굳은 위로를 받은 성도가 가장 부드럽고, 가장 부유하면서 심령은 가장 가난하며, 가장 강하면서 가장 작은 어린아이 같다.

1. 참된 기쁨은 떨며 즐거워하는 기쁨이다
2. 소망이 클수록 마음은 더 여려진다
3. 확신은 공포를 없애고 경외를 키운다
4. 지옥보다 죄를 더 두려워하게 된다
5. 가장 강한 성도가 가장 어린아이 같다

> **시편 2:11**
> 떨며 즐거워하라 — 은혜로운 기쁨과 경외가 함께함
>
>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 **시편 33:18~19**
>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 소망과 경외가 한 사람 안에 있음

18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시편 147:11

경외하는 자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심 — 소망과 경외의 결합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지옥이 덜 두려워질수록 죄를 더 두려워하게 된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마음이 어떤 대상에 강하게 끌리거나 싫어하며 움직이는 것으로,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이 여기에 깊이 자리한다고 본다.

강퍅함
마음과 양심이 굳어서 말씀의 경고에도 찔리지 않는 상태다.

율법적 깨달음
은혜를 받기 전 주로 지옥이 두려워서 죄를 자각하는 상태다.

율법적 슬픔
자기가 당할 손해와 벌 때문에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자기중심적 원리에서 나온다.

경건한 슬픔
하나님께 죄지은 것 자체가 슬픈 마음으로, 마음을 가장 깊이 부드럽게 한다.

주인의 매가 무서워 조심하는 종의 두려움처럼 벌을 피하려는 두려움이다.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크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거룩한 담대함

죄 사함을 믿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로, 공손함을 없애지 않는다.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앎으로, 참된 확신은 사람을 느슨하게 하지 않고 더 조심하게 한다.

예표(모형)

구약의 사건이나 인물이 뒤에 올 실체를 미리 보여 주는 그림이다(나아만, 리브가).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참된 은혜의 감정은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여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
- 거짓 감정은 처음엔 뜨거워도 결국 양심을 무디게 하고, 그리스도를 죄의 보호막으로 쓰게 한다.
- 거룩한 담대함은 실제로 있지만, 창조주 앞의 공손함과 통회를 결코 없애지 않는다.
- 은혜는 양심을 예민하게 하므로, 확신·기쁨·소망이 클수록 죄에 대한 두려움도 커진다.
- 가장 굳은 위로를 받은 성도가 가장 부드럽고, 가장 강한 성도가 가장 어린아이 같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20편 · 부드러운 마음 · 표지 9 하나님을 두려워함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